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2년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는 무엇일까?

14P

투자프로젝트 이행 위반에 대한 쟁점 검토

29P

- 투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어떠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2021년 베트남 히트상품 및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14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금융감독원(KFF) 23
☑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5탄>	K-MARKET 고상구 회장 26
☑	<법률> 투자프로젝트 이행 위반에 대한 쟁점 검토	전현우 변호사 29
☑	<비즈니스 에피소드> 오해와 진실	김유호 변호사 33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하명성>	35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41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5





RCEP 발효, 베트남 산업별 동향

- 농수산물 수출기업, RCEP으로 일본,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모색
- RCEP 회원국 사이 섬유 및 의류 산업 공급망 강화
- 자동차 산업, 자유 경쟁 시대로 가나?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8년간의 협상 끝에 2022년 1월 1일부로 베트남에서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RCEP 협정국과 양자 또는 다자 간으로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RCEP을 활용해 단일 원산지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CEP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다 보니 큰 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전략적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RCEP 발효에 따른 각 산업별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RCEP으로 일본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모색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기업은 RCEP 발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과 중국 등 두 주요 시장에 중점을 두고 2022년에 1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장이며, 중국의 경우 소비 수요가 큰 진출 확대 전략이 필요한 최대 잠재시장이기 때문이다.

RCEP 회원국 사이 섬유 및 의류 공급망 강화

베트남은 RCEP 발효로 인해 협정국 내 섬유 및 의류 산업 공급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RCEP 회원국으로부터 다른 RCEP 회원국으로의 섬유 수입액이 약 72.8%로 2005년(57.6%)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RCEP 발효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RCEP을 통해 일본, 한국, 중국이 섬유산업 지역 공급망의 주요 공급자로 견고화 되고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지역이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CEP의 경우, 다른 협정과 달리 의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가공공정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섬유 제품 수출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자유 경쟁 시대로 가나?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정부 보호산업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RCEP을 포함한 베트남-EU FTA와 같은 다양한 양자 간 및 다자 간 무역협정에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s) 이행 조건의 하나로 아세안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다. 특히 베트남-EU FTA 규정에 의해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EU의 CBU 자동차 수입 세율은 55~75% 수준으로 베트남 국산차와 경쟁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베트남의 국내 자동차 생산이 국산화율이 낮아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2021년 베트남 경제 견조한 성장

- 2021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2.58%로 저조하지만, 수출입 규모는 역대 최고 달성
- 2022년 주요 포인트: M&A, 관광객 허용, 경영환경 개선

2021년 주요 경제지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2021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2.58%를 달성하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4.72%, 2분기 6.73%, 3분기 -6.02%, 4분기 5.22%를 각각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2020년보다 9.2% 증가해 약 311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수출입은 각각 19%, 26% 증가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베트남 경제의 주요 견인 요인

1) 늘어나고 있는 M&A

2021년 수출입 규모는 최고를 달성하였고 그와 동시에 M&A 역시 베트남 경제를 이끌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M&A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벌써 3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화학부문과 부동산이었다.

2) 베트남정부의 지원정책 및 노동허가서 완화

법인세 30% 인하조치가 포함된 결의안 발표가 있었으며, '21년 기준 연 매출이 88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2000억 동)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허가서 발급조건도 완화가 되었다. 기존에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2021년 연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베트남에서의 근무경력도 인정하고 있으며, 전공과 기존 경력이 현재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3) 관광재개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푸꾸옥 그리고 호이안, 나트랑 등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허용을 시범으로 운용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격리기간 축소를 시행해 6월에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15일 동안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여 다시금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점 : 디지털화

코로나19로 많은 산업부문이 타격을 받았지만 전자상거래 및 비대면 결제시스템은 혜택을 받은 만큼 디지털 경제의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결제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0%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현금경제의 베트남을 뒤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의 인프라 구축 속도는 상당히 빠른편이며, 젊은 인구가 주 소비층으로 등극하면서 소비 뿐만 아니라 비대면·온라인이 전 산업에 걸쳐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살펴보기

-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 정부 주도의 탄소감축 노력 다대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92년 베트남 1인당 CO₂ 배출량은 0.272미터톤(Metric ton)으로 아세안 국가 중 하위그룹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2.699미터톤으로 약 892% 증가했으며 같은 역내 국가인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팜 민 쯐 총리는 지난 11월 유엔기후변화 협약 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단계적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약속하였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1) 베트남의 2021-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수립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2021-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에너지, 농업, 토지이용·토지 용도 변화 및 임업(LULUCF), 폐기물, 산업공정 등 포괄적인 부문이 포함되었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전력 총설비용량은 69.3GW이다. 그중 발전원별 용량을 살펴보면 석탄 20.4GW(29.4%), 수력 20.7GW(29.9%), 신재생에너지 17.8GW(25.8%), 천연가스 7.1GW(10.2%)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다.

3) 베트남판 '따릉이' 공공 자전거 시범 운영

지난 12월 16일 호찌민시는 시내 중심지(District 1)를 시작으로 공공 자전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호찌민시 도로교통국과 트리남그룹(Tri Nam)이 교통 혼잡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43곳에 500대의 공공자전거를 배치했다.

시사점

베트남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신재생에너지 투자 장려 정책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전량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물론 재정적 부담으로도 대두된 바 있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브영 딘 후에 국회의장은 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각료들과 함께 한국을 공식방문하였고 SK그룹과 탄소감축을 위해 친환경 사업 개발 부문에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내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현장 조망

- 한류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가
-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

최근 베트남의 먹거리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소비하는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 덕분에 2015~2019년까지 베트남 내 외식업계는 각 음식부문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일군 바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체인산업 규모가 선방하였으며, 2025년까지의 전망도 비교적 밝은 상황이다. 최근 한류효과를 통해 한국 음식의 베트남 진출도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는 곧 투자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1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전체 투자 금액 중 호텔, 외식서비스가 4위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듯, 아시아 및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베트남 요식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현장 인터뷰에 담아보았다.

인터뷰1: SEO WANG 김주명 대표

Q. 베트남 진출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A.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해외에서의 사업은 국내에서 하는 사업보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가 절감이다. 요식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자재인데, 식자재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가 최종 수익에 많은 영향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FTA 등을 활용해서 관세 혜택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다. 다른 내용들은 이전의 성공사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원·식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꼭 상기시켜주고 싶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만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랩(Grab), 배민(배달의민족) 등의 현지 배달 어플 활용은 필수적이며, 정부의 방역지침도 항상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밀키트 제품 출시도 준비해서 ① 오프라인 내방고객 매출 ② 오프라인 포장·배달 매출 ③ 온라인 상품 매출로 매출 구성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인터뷰2 : 두끼떡볶이 고밥 빈컴센터점 황동원 대표

Q. 시사점이 있다면?

A. 먹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있다. '먹방'과 같이 시청하는 콘텐츠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재료를 선택해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두끼떡볶이는 이들에게 생소했을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점들이 진출전략이자 홍보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서비스 수준과 인력관리를 낮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 식당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경험 그리고 정돈된 체계는 내방 고객들이 늘 기대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베트남 위조상품 유통 확산, 보호방안은?

-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조상품 유통 온라인으로 확대
-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권리확보 및 법적근거 마련이 중요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위조상품 단속 현황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위조품, 밀수품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액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치민 시장관리국에서는 2021년 1-8월까지 총 1,684건을 단속하며 240억 VND(약 104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반 제품을 폐기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53% 증가한 것이다. 또한 810억 VND(약 352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반 제품을 압수하였으며, 이외 54억 VND(약 23만 달러)에 해당하는 15건(금지물품 3건, 위조품 6건 및 밀수 6건)에 대해 형사입건을 검토 중에 있다.

온라인으로 확산 중인 위조상품

'21년 1월 기준 베트남의 약 9,600만 인구 중 인터넷 사용 인구는 6,900만 명으로 71%에 달하며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며 2020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32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과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대비 4-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국가들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위조품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를 통해 손쉽게 판매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어 위조품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단속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내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등 침해 대응을 위해서는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베트남도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을 한 경우라도 베트남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개로 등록이 필요하며, 선출원주의에 따라 누가 앞서 사용을 했냐 보다 누가 먼저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정당한 소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기업 또는 진출 희망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관 밀수방지조사국의 담당자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베트남 지식재산권에 출원 및 등록 이후 세관에 추가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은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편승하기 위해 유통 및 판매되는 위조상품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개최한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시장관리총국 켄 흐우린 총국장은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한국 제품을 애용하고 있으나 오랜 경험과 경력에도 한국 브랜드 정품 식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으며 기관 대 기관, 기관 대 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 2022년 1월부터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기반 판매자들에게도 직·간접적 과세 및 징수
- 사업자등록·원천징수세액 미신고·세금 미납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은행 및 지불결제대행 거래 수수료를 통하여 간접 과세 예정

조세행정에 관한 법령 개정

2020년 10월 19일자로 조세관리에 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시행령(No.126/2020/ND-CP)이 공포되었다. 특히 제30조는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기반 사업(해외공급업체)을 운영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규정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행정 위반 제재 조항 개정

베트남 정부는 2020년 8월 26일자로 '전자상거래 행정위반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생산·판매·금지상품·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 처벌 규정(98/2020/ND-CP)'을 공포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자 법령(185/2013/ND-CP)을 대체하며, 2015년 11월 19일자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시행령(124/2015/ND-CP)을 개정 및 보완했다. 특히 제10조 제62항부터 제66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은 100만 동(5만 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4,000만 동(200만 원)이며 조직, 기관 및 기업이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투자자 조건부사업목록 개정

전자상거래 분야는 외국인 조건부 투자자가 가능한 산업이다. 2021년 3월 26일 정부는 신규투자법(31/2021/ND-CP)을 공포해 조건부 투자 사업목록을 일부 개정하였다. 제2장 제2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제한, 적용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부 사업목록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기업 전자상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2021년 9월 25일 정부는 법령(85/2021/ND-CP)을 공포하여 2013년에 발행된 시행령(2013/52/ND-CP)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1) 전자상거래 법 적용대상 해외법인 (2) 베트남 영내 해외 법인 (3) 현지 공식 파트너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기존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선도기업 5개사에 속한 기업을 외국인투자자가 인수 할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베트남 카메라·프로젝터용 렌즈 시장동향

-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카메라 시장의 성장속도 둔화
- 전문촬영이나 화질,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주 타깃

베트남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기존 디지털 카메라의 판매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고급 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DSLR 카메라의 경우 다양한 모델들이 현지에 소개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사무실 및 학교에서도 영상기기를 많이 활용함에 따라, 해당 영상기기들의 교체를 위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규모

베트남 내 카메라 및 영상기기의 수입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크다. 이어서 대만과 한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약 1300만 달러를 수출했다. 2016년~2020년 베트남의 수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한국의 수출 규모도 2016년 대비 10%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수출국의 순위도 크게 바뀌었는데, 대만의 경우 2013년 까지만 해도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한국도 1위에서 3위로 그 규모가 줄었다. 중국과 대만이 수입시장에서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통현황

유통 측면에서, 카메라 및 프로젝트용 렌즈 제품은 대부분 대형 몰 혹은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고가의 제품임에 따라 기존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신뢰문제로 그 거래금액이 미미한 편이었으나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소비자들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나 제품의 화질 품질 등에 대해서 점점 꼼꼼해지고 있으며, 교체 주기가 길다보니 AS도 상당히 중요해 지고있다. 단독 매장보다는 대형 유통업체 혹은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 입점을 하는 것이 제품 노출에 현재는 많이 유리한 상황이며, SNS를 통한 홍보는 필수적이다.

시사점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이며, 이를 이용한 사진촬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SNS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사진을 신속하게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도 상당히 중시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홈시네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사진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DSLR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을 중점적으로 타겟팅 하는 것이 중요 전략이 될 것이다. OTT 서비스, 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를 동반한 홍보도 점차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계자에 따르면, 고가제품의 구매시기는 1~2월에 있을 베트남 설연휴(땃) 기간에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으며, 이때 상품홍보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절차 간소화 시행**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1월 18일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입국절차 간소화에 관한 문서가 즉시 발효되었다고 밝힘. 또한 팜 빈 민(Pham Binh Minh) 부총리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함. 따라서 비자, 비자 면제증, 거주증 및 임시 거주증 등 입국시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는 외교부 및 인민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도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됨. 기존에는 비자 혹은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해외에 출국했다가 베트남에 입국을 원하면 인민위원회, 출입국관리소, 보건국 등 최소 3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VN Express, 1. 20]

▶ **2021 베트남 철강제품 판매량 2300만 톤, 전년 대비 17% 증가**

2021년 베트남 철강제품 판매량은 2,300만 톤으로 2020년보다 17% 증가했음. 2021년 5대 철강 수출시장은 아세안(ASEAN),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대만 순이었으며 반면, 주요 철강 수입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철강 수입의 41.38%를 차지함. 또한 일본, 한국, 인도의 경우 각각 베트남 공급량의 14.5%, 13.6%, 12.2%를 차지하였음. 응이엠 쉐언 다(Nghiêm Xuân Đa) 베트남철강협회장은 2022년 베트남 철강 시장을 평가하면서 “COVID-19 팬데믹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안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함.

[Tuoi Tre, 1.19]

▶ **Wayne Besant AIA 생명 베트남 대표, Tiki 비상임 이사로 선임**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몰인 Tiki는 AIA 생명이 주도한 5번째 시리즈 E 투자유치를 성공한 후 AIA 생명 베트남 대표인 Wayne Besant를 비상임 이사로 선임함. Tiki는 AIA 생명과 손잡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보험 유통 채널을 개발하고자 함. 2021년 12월 14일, AIA 생명 베트남은 Tiki에서 입원 및 응급 수술에 대한 ‘Care Nex Support’ 보험상품과 병원 입원 및 수술에 대한 ‘Ultra Care Nex Support’ 상품을 출시함. Tiki 고객은 간단한 온라인 서명 및 무현금 결제를 통하여 Tiki에서 즉시 AIA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이를 통하여 Tiki는 2천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AIA 보험 상품을 홍보할 수 있었으며, 5만 명의 고객이 AIA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험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다고 밝힘.

[Vietnam Investment Review, 1. 18]



▶ 2021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현대차가 2위, 기아차가 3위를 차지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 현대 TC Motor, VinFast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1년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동차 메이커는 도요타(6만 7,339대)이며, 현대 TC Motor가 6만 401대로 2위, Kia Thaco는 4만 5,532대로 3위를 차지함. 기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판매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판매율이 16% 성장하며 2년 연속 자동차 판매대수 3위를 차지함.

[VN Express, 1. 17]

▶ 3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등록비 0%

'전기자동차 등록비 전면 감면 규정(10/2022/ND-CP)'이 발행됨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3년간 전기차 등록비는 0%로 조정 될 예정이며 이후 2025년 3월 1일부터 2년간 전기차 등록비는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등록비의 50%로 감면 됨. VinFast VF e34의 정가는 6억 9,000만 동으로, 동급 휘발유 차를 하노이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비인 8,280만 동을 지불해야 하며 이외에 차량 번호판 등록비용, 도로유지관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차량 구매자가 신차 인도 시 납부해야 할 가격은 7억 9,500만 동임. 그러나 3월 1일부터 VF e34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전기차 등록비 8,280만 동을 감면 받아 실제 차량 인도금은 7억 1,200만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베트남에는 VinFast에서 판매중인 전기차 VF e34, VF8, VF9이 있으며, 기아 Thaco는 기아의 EV모델인 EV6를 베트남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EQS와 EQB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Dan Tri, 1.16]

▶ UOB, 동남아 4개국에서 시티그룹 소매금융부문 인수

Citibank를 보유한 Citi Group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소매금융부문을 UOB(United Overseas Bank)에 36억 달러 규모로 매각할 예정임. 이 거래에는 신용카드 및 소매 금융사업, 무담보 대출 포트폴리오, 소매예금 및 자산관리가 포함되며, 시티그룹은 계약이 성사되면 약 5,000명의 시티그룹 직원이 UOB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함. 시티그룹은 2021년 상반기 기준 상기 4개국 소매금융부문에서 순 자산 29억 7천만 달러와 약 240만 명의 고객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1년 상반기에는 3억 7,127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짐.

[VN Express, 1. 14]

▶ 코로나 여파로 2021년 비현금 결제가 베트남 총 소매 거래의 70% 차지

COVID-19 팬데믹은 전자상거래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21년 비현금 결제가 베트남의 총소매 거래의 70%를 차지함. 15,0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현금없는 결제가 전체 거래의 72.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임. 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가 가장 인기있는 결제 수단이 되어 소매점, 식당, 카페 전체 거래의 36.5%를 차지했으며 현금(29.8%), 전자 지갑(14.8%), QR 코드(9.9%), 은행카드(9.9%)가 그 뒤를 이었음. 특히 소매업체의 89.3%가 비현금 결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의 추세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소매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비현금 결제 도구가 곧 출시될 예정임.

[Vietnam Plus, 1. 14]



▶ 하노이, 2021-2025년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노이 외곽지역에 2~5개의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하는 결정서에 서명함. 산업단지 설립 예상 지역은 속선(Soc Son), 동아잉(Dong Anh), 박 트영 띵(Bac Thuong Tin), 푸 응이아(Phu Nghia) 및 트영 띵 풍 히엵(Thuong Tin Phung Hiep) 등임. 2021년 12월 말 기준, 하노이는 약 61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사업 303개, 약 7억 8,2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사업 399개를 포함하여 총 700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44%), 기계(24%), 기타산업(32%) 순임. 2021년 기준 하노이 산업단지의 투자국 순위는 일본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1위이며 그 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Vietnam Investment Review, 1. 11]

▶ 쩡닌성, 20일만에 몽카이 국경 게이트 통관 재개

2021년 12월 21일부터 중단되었던 쩡닌성 몽카이시 국경게이트의 수출입상품 통관이 2021년 1월 10일자로 약 20일만에 재개됨. 이를 통해 1월 10일 정오까지 신선 해산물을 탑재한 컨테이너 약 44대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51대가 중국에서 수입됨. 베트남 몽카이시와 중국 동흥시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국경게이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RT-PCR 테스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으며, 국경 환적지역에서 운전자를 바로 변경하여 각 운전자가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함. 몽카이시는 장기간에 걸친 건조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식 자동 과일 건조 시스템을 긴급 설치 중이며, 기존에 통관 애로로 인하여 폐기된 과일에 대해서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폐기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Nhan Dan, 1. 10]

▶ 2022년 베트남 제조업 부문, 코로나19 통제로 성장 전망

베트남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2022년에는 통제되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IHS Markit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제조부문은 2021년 말에도 견실한 속도로 계속 성장했으며 일자리 창출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남.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뚜렷했지만 11월 이후 눈에 띄게 완화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공급망 지연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신호를 반영한 것임. 베트남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 52.2에서 12월 52.5를 기록했으며, 이는 3개월 연속 비즈니스 상황 개선을 의미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1. 9]

▶ KOICA, 코로나19 예방용 일회용 주사기 630만개 기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월 6일 베트남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630만개의 일회용 주사기를 기증함. 이는 한국 정부가 KOICA를 통하여 베트남 보건부에 기부한 250만 달러 규모의 주사기 4,250만개 중 일부임. 2021년 한 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139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는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30만개를 기증함. 또한 2021년 5월에는 베트남 국제공항 10군데에 열화상 스캐너 40대를 지원한 바 있음.

[베트남 정부포털, 1. 6]



▶ 2022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6.0~6.5%, 1인당 GDP 3,900달러 목표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정부 중앙위원회 결의 이행에 관한 회의에서 2022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의결하고, 1인당 GDP 3,900달러, 경제 성장률 6.0~6.5%의 목표를 발표함. 또한 베트남 정부는 소매업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8% 증가시키고, 물가상승률은 4% 이내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움.

[Vietnam Investment Review, 1. 6]

▶ 베트남 수입 농산물 거래 가격 급등

베트남 상품거래소는 1월 4일 기준, 수입 농산물 거래 가격이 작년 11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밝힘. 농산물 가격 상승을 주도한 상품은 옥수수로서, 1부셸당 609.50센트에 마감됨. 대두 거래액은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여 1부셸당 1,389.97센트를 기록했으며, 밀의 경우 1부셸당 770센트로 11월 대비 1.6% 상승함.

[Nhan Dan, 1. 5]

▶ 베트남 교통부, 2030년까지 6개의 신규 공항 설립 제안

베트남 교통부(MoT)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공항개발전략에 대한 총리 승인 요청서에 서명함. 이에 따르면 교통부는 6개의 신규 공항을 건설하여 전국의 공항을 현재 22개에서 2030년까지 28개로 늘리고 연간 2억 8,300만 명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28개의 공항 중 번돈, 깃바이, 노이바이, 다낭, 푸바이, 룡탄, 먼선녓, 켄터, 푸썩 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운영할 계획임. 베트남 국가 공항 인프라의 토지면적은 2만 헥타르 이상이며, 총 제안 자본은 약 1,739만달러에 이룸.

[Vietnam Investment Review, 1. 5]

▶ 2021년 디지털 기업 신규 설립 약 5,600개사, 누적 6만 4,000개사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2021년에 약 5,600개의 디지털 기업이 신규 설립되어 누적 기업 수는 총 6만 4,000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힘. 또한 베트남의 'Make in Vietnam'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는 1백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Make in Vietnam 플랫폼은 총 34개이며 VNPT, Viettel, CMC, FPT 등 베트남의 주요 국영 및 민간 디지털 기업이 베트남의 전자정부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2020년 베트남의 디지털 산업은 전년 대비 9% 성장했으며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GDP 성장률의 3배에 달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 3]

▶ UNDP : 베트남 경제성장률 2022년 6.3%, 2023년 6.8% 전망

유엔개발계획(UNDP)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나단 핀커스는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 6.3%, 2023년 6.8%에 도달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베트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 유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함. 한편, IMF는 베트남의 2022년 무역규모가 전년 대비 11%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

[베트남 정부포털, 1. 1]



(입찰정보)

1. 발골 프로젝트 리스트

- Bac Ai 수력발전소 설비조달 및 시공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Bac Ai 수력발전소 설비조달 및 시공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EVN ○ 연락처 : +84-24-6694-1369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Ninh Thuan성, Bac Ai군 ○ 규모 : 약 99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미정 ○ 프로젝트 단계 : 주요 설비 구축 중, 2022년 3분기 입찰 진행 예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계 조달 - 지하 발전소 및 터널 시공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Quang Tri성 인민위원회 ○ 연락처 : +84-233-3553-713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Quang Tri성 ○ 규모 : 약 19.05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WB ○ 프로젝트 단계 : Pre-F/S완료, F/S 진행 중, 2022년 입찰 진행 예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 : Cua Viet Port(Gio Linh군) ~ Thanh An현(Cam Lo군) - 규격 : 길이 13.8km, 4차선, 설계속도 60~80km, Width : 20.5~25.5m



2021년 베트남 히트상품 및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상거래 확산, 건강기능식품 및 간편식에 대한 관심 제고
- 2022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건설 분야 유망, 웰빙 및 친환경 트렌드 확산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베트남의 비대면 소비 트렌드는 2021년 장기간 지속된 4차 팬데믹과 봉쇄의 여파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외출 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자상거래와 전자 결제를 통한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증가했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간편식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 정부도 기존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방역정책을 선회했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기업 활동도 회복세를 보이며 4개월 연속 하락하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10월 들어 전월 대비 11.9P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동 제한 조치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10월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9.1%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여행 및 건설 산업 등 코로나19 피해 분야 위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전망된다. 이에, 2021년 베트남의 코로나19 수혜 상품을 살펴보고 2022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분야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1년, 코로나19 수혜 상품

1) 건강기능식품

‘베트남에서는 최근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서구식 고칼로리 식습관 확산에 따른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소비트렌트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정적으로 확산됐다. 기존 베트남 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그 외에 품질, 배송 등과 같은 부분을 중요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건강 및 위생을 보다 중시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 요인도 다양화됐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지난 2019년 시장조사업체 닐슨이 실시한 소비자 관심사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주요 관심사로 ‘건강’을 꼽았다.

특히 비타민과 홍삼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HS Code 210609) 수입 규모 추이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약 7억7000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 2016년(4억7000만 달러)에 비해 62.5%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비위생적인 음식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며 고가의 수입식품, 유기농,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닐슨의 설문조사에서 ‘건강’을 주요 관심사로 꼽은 응답자의 86%는 식품 구입 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유기농 및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 판매 매장>



[자료: 현지 홍삼 수입유통업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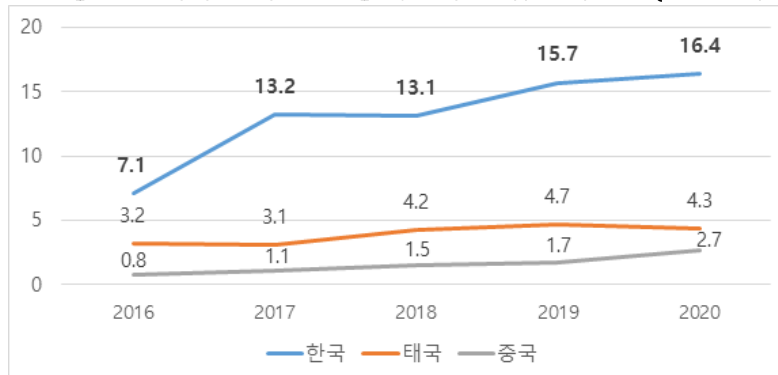
2) 가정 간편식

가정 간편식은 최근 식사 준비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 인구 증가 및 가구당 인원 수 감소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냉동 가정 간편식을 대규모로 보관할 수 있는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 등 현대식 소매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접근성도 크게 향상됐다. 과거 가정 간편식의 주요 소비층은 대도시의 젊은 직장인들이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점차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총 4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외출 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는 재택 기간의 증가와 가정 간편식의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 온 가족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봉쇄 조치에 따른 식료품의 물류 이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 가정의 냉동 즉석 식품에 대한 비축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1년 베트남의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2019년(1억 4000만 달러) 대비 8.63% 확대됐으며, 수입 규모 역시 2019년 대비 9% 성장한 약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내 유통되는 한국산 가정 간편식은 떡볶이, 라면 등 매운맛을 강조한 제품들과 만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냉동 제품 유통에 필수인 콜드체인(냉장·냉동 유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향후 밀키트, 즉석조리식품 시장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가정 간편식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TC Trade map]



3) 온라인 전자상거래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성장이다. 2021년에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에 따라 급격히 성장해 전년대비 10% 증가한 130억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3분기 베트남 상위 10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총 방문 횟수는 태국의 2배, 말레이시아의 3배에 이르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5%로 전망된다. 특히, 외출이 제한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일용소비재를 구매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베트남의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Shopee)의 짠 뚜안 아잉(Tran Tuan Anh) CEO는 “지난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일용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의료 및 보건 용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 성장이 돋보였다.”며, 향후 베트남 소비자들의 온라인 생필품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기업 방문자수 순위> 주: 2021년 3분기 기준

Merchant	Monthly Web Visits
1 Shopee VN	77,826,700
2 Thế Giới Di Động	50,923,300
3 Điện Máy Xanh	27,043,300
4 Lazada VN	21,413,300
5 Tiki	17,500,000
6 Bách Hóa Xanh	8,243,300
7 FPT Shop	7,953,300
8 Cellphones S	7,130,000
9 Sendo	4,746,700
10 Hoàng Hà Mobile	4,356,700

[자료: iPrice group]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 방식도 COD(Cash On Delivery)에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전자 결제는 베트남 정부에서 ‘현금없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적극 드라이브 걸고 있는 부문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거래 트렌드 확산과 함께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베트남의 전자 결제 서비스 1위 기업인 모모(MoMo)의 이용자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전체 전자 결제 이용자수가 1,30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 기업 VNPAY가 2020년 베트남의 두 번째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에 등극하면서 향후 베트남 전자 결제 시장규모는 더욱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포장재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상품 배송을 위한 종이류 포장재 시장 역시 크게 성장했다. 2020년 베트남의 종이류 포장재 생산량은 434만 톤으로 2019년 대비 16%나 증가했다. 종이류 포장재 시장의 성장은 베트남-EU자유무역협정(EVFTA) 등 메가 FTA 체결에 따라 농수산, 의류 등 포장재가 필수인 산업군의 수출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성장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상품 배송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환경오염 등의 이슈에 따라 최소 포장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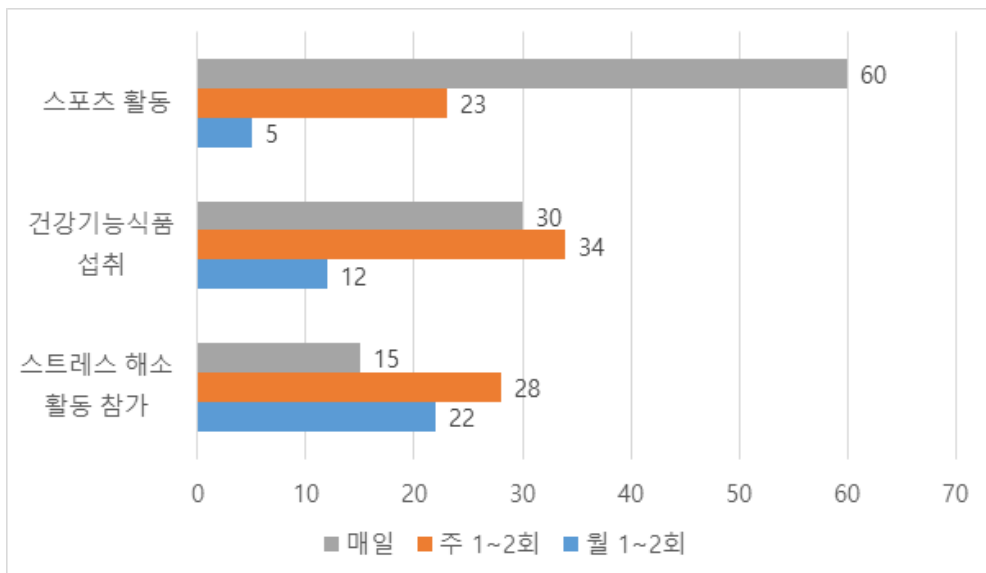
2022년, 포스트 코로나19관련 유망 분야

1) 건강 관리, 웰빙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Euromonitor)가 2021년 10월 발표한 2021년 베트남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식품 및 음료 구매 시 건강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38%가 향후 의료 비용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2%는 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활동(건강검진, 영양제 복용, 주기적 운동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건강과 웰빙(Wellbeing) 분야의 지출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이러한 관심은 여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64%가 적어도 매주 한 번씩 비타민C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67%가 식품 및 음료 구매 시 영양 라벨을 자세히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활동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관심> (단위 : %)



[자료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성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매일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여성과 매일 스트레스 해소 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은 각각 62%, 65%로 남성(각각 38%, 3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매일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육체적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 인기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여성층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 미용 및 다이어트 보조제와 디톡스 제품이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화 방지 및 뼈 건강 관리 제품의 인기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역력 증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C, 멀티비타민, 홍삼 등의 인기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12억 1천만 달러 규모였던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1년 21억 9백만 달러로 5년 만에 73%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타민 제품의 경우 작년 전년 대비 약 11.6% 증가한 약 8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홍삼 등 제품이 해당되는 전통 건강 보조제 역시 전년대비 약 9% 성장한 5억 4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두 분야는 향후 2026년까지 9% 이상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워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피트니스클럽이 재개장하면서 스포츠 의류와 용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운동은 조깅과 자전거 타기, 요가 등이며, 스트레스 해소 활동으로는 주로 마사지, 요가, 명상 등이 있다. 이 중 요가는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 활동 모두에 해당돼 조깅과 함께 베트남인들의 대표 건강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시장조사업체 Q&ME에서 최근 베트남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2030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54%가 요가 혹은 필라테스의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레깅스 등 스포츠웨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관광

베트남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2% 수준으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 제한, 영업 중지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관광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2020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 부문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베트남인의 베트남 여행” 등과 같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캠페인을 시작했다.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인 국내 관광객이 몰리며 캠페인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결국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국내 관광 수요 역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남부 푸퍽섬과 중부 호이안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면서 주요 관광지의 외국인 관광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주요 관광지의 본격적인 관광객 유입은 2022년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초 다낭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투자(FDI)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낭시 관광국은 2021년 말까지는 국내 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았으며, 접종 완료자가 대부분 관광 수요가 높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국은 12월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2차 접종률이 증가한다면, 2022년 2월부터 국내 관광객을 수용하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여행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4~5성급 호텔 등 고급 서비스가 포함된 베트남 국내 여행 상품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낭 관광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7%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통제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숙박 형태는 4 ~ 5성급 호텔이 62.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6.4%로 당분간 단거리 여행 및 스테이케이션*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스테이케이션: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집이나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회현상

올해 베트남 국내 관광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 가방, 레저 용품 등 여행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Macat, Sakos 등 베트남산 캐리어는 현지에서 70만 동 ~ 170만 동 수준으로 수입품(130만 동 ~ 250만 동)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매년 여행 시즌에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워드코로나 정책을 먼저 실시한 EU와 미국 등에서 베트남산 여행용 가방의 수입이 증가 했듯이, 베트남 역시 올해 국내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여행 용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용 가방 판매점 전경>



[자료 : DOANH NGHIEP VIET NAM]

3) 건설 인프라

베트남은 아세안 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3번째로 큰 건설시장(178억 달러)을 가지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5.7%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도 8.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2년 건설 시장은 경제 정상화와 세계 건설시장의 호조에 따라 7.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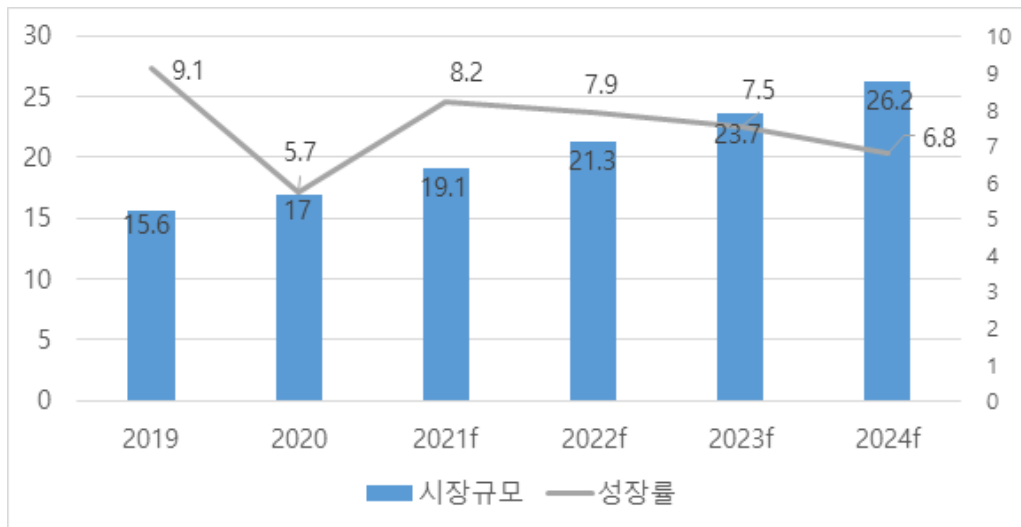
특히,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로 향후 인프라 산업은 10년간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봉쇄로 2021년 3분기까지 베트남의 인프라 산업 지출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따라서 2022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작년보다 공격적인 공공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에 나서며, 건설인프라산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단 및 연기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건설용 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의 경우 2021년 4월 말 시작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하노이, 호찌민 등과 남부 19개성 지역의 건설 현장이 중단되면서 수요 감소를 겪었다. 다만, 봉쇄 조치 해제 및 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 가속화로 인해 5월부터 11월까지 시멘트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베트남 시멘트 협회(VNCA)에 따르면 2021년 10월 국내 시멘트 소비량은 523만 톤으로 2020년 동월 대비 5% 증가했으며, 전월(9월) 대비 142% 증가하며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건설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시멘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 팜 반 박(Pham Van Bac) 국장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통제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 역시 정상화를 앞두고 있어 향후 국내 시멘트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 프로젝트가 속속히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건설용 페인트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페인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용 페인트는 인프라 건설 확대와 부동산 개발 호황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왔다. 베트남 페인트인쇄잉크협회(VPIA)에 따르면 베트남 페인트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중산층 확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테리어 페인트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저가 제품의 수요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방수 및 곰팡이 방지 등 기능성 페인트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같은 유해 물질 함유량이 적은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건설산업 규모,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



[자료 : DOANH NGHIEP VIET NAM]

4) 친환경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기후 변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경향은 베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3%가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39%가 친환경 제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46%가 친환경 포장제품 구매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호찌민시 호아센(Hoa Sen) 대학교 심리학과 판 뜨영 옌(Phan Tuong Yen)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Z세대는 향후 사회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기업들도 친환경 트렌드를 적극 수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베트남 2위 유제품 생산기업인 TH True Milk는 우유팩과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재를 모두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 100%를 수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퇴출되고 있다. 커피 전문점의 플라스틱 빨대와 접시는 종이로 대체됐으며 하이랜드 커피(Highlands Coffee)의 경우에는 비닐 포장재의 사용을 중단하고 생분해 성분의 포장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더커피하우스(The Coffee House)의 보 주이 푸(Vo Duy Phu) 마케팅 이사는 회사는 향후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80%를 줄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친환경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1월 1일 개정 환경보호법(No. 72/2020/QH14)을 발효하여 환경보호 정책, 생산 제조 기업의 환경 보호 책임, 환경 영향 평가(EIA) 대상 사업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래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베트남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역시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트남 완성차 제조업체인 빈패스트(Vinfast)는 작년 11월 2021 LA오토쇼에서 전기차 SUV 모델을 공개했으며, 하띵(Ha Tinh)성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오토바이의 매연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3850만 톤)을 기록하고 있는 호찌민시는 최근 5개의 전기버스 노선을 2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낭시 역시 지난 2017년 공용 충전소를 설치한 이후 향후 10년 동안 3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 빈패스트(Vinfast)는 빈홈(Vinhomes), 빈컴센터(Vincom Centre) 등에 200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 '그린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차의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패스트의 전기차 충전소 '그린 스테이션'>



[자료: 빈패스트(Vinfast)]



시사점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개월간 지속된 베트남의 코로나19 4차 팬데믹 및 광범위한 봉쇄조치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대면 소비트렌드를 가속화 시키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및 간편식 등에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련의 소비 트렌드 변화는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전자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져 지하경제 규모가 컸던 베트남의 경제 전반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친환경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무형적 가치 추구하고 더불어 효율성 및 투명성 등도 가까운 장래에는 베트남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베트남 시장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의 뉴노멀에 주목해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자료: VIR, Viet Nam News, VNEXPRESS, Vietnam+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FSS HANOI OFFICE)

1.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의 겸업화·글로벌화 진행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1999.1.2.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08.2.29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자본시장 감독, 금융IT 감독, 조사연구 및 통계편제,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 소개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는 외국 금융감독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설치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7개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하노이사무소는 2013.12.26 금융감독원과 베트남 재무부 및 중앙은행간 MoU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협력 업무입니다. 한국·베트남간 금융제도 관련 인력 교류, 세미나 개최, 자료 제공 등 협력·지원, 연수, 출장 등 한·베 상호 방문 프로그램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 진출 한국계 금융회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신규 진출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협의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을 수집하여 관련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감원 본원 및 유관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본원 임직원들의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조사항을 조율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금융 관련 베트남 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금융제도 조사 및 현지 금융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 업무현황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는 4대 베트남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증권위원회, 국가금융감독위원회)과 상호협력 업무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금융법령 제개정시 금감원 전문가 파견 및 세미나·연수 실시 등으로 한국의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한국 금융회사에 우호적인 제도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금융감독제도 등 베트남 당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맞춤형 온라인 연수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관련 온라인 연수 실시, 중앙은행 대상 핀테크 세미나, 재무부 대상 보험법 개정 세미나, 증권위원회 대상 증권법 개정 세미나 개최, 국가 금융위원회 대상 금융지주감독제도 세미나 개최 등 베트남 감독당국과 교류·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금융법령 제개정시 한국계 금융회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노이사무소는 베트남 진출 국내 금융회사와 베트남 감독당국과 긴밀한 업무협조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영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12월말 현재 베트남은 진출 국내 금융회사수가 총 56개로 중국(60개) 다음으로 많은 국가입니다. 하노이사무소는 베트남 감독당국 인허가 등 담당자와의 직통채널 운영을 통해 인허가 진행상황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준법동향 등 파악을 통해 베트남 감독당국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공유하고 신속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당국 이외에도 국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진출 금융회사 지원, 베트남 당국의 적시성 있는 정책판단의 기초정보 수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 초청 세미나 개최 등 베트남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간 정례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금감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베트남 국가금융위원회(NFSC)의 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하노이사무소는 관련 부처 및 감독당국 등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베트남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금융 관련 대규모 협력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마무리되면 베트남 금융부문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시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취약한 경제·금융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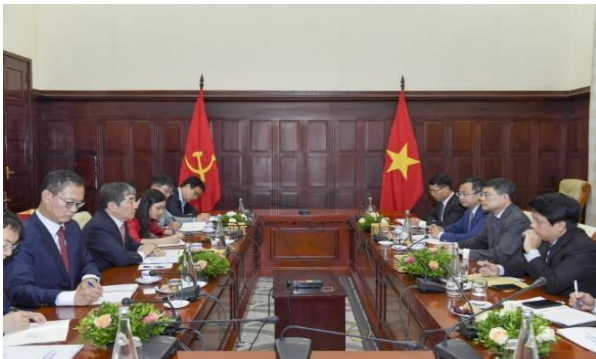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관련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베트남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의 규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레크테크)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 분야의 새로운 제도 및 정책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젊은 인구구조와 높은 경제 성장률, 디지털 보급률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베트남 핀테크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하노이사무소는 전문가 방문(온라인) 연수 및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규제개혁, 오픈뱅킹 및 P2P 감독방안 등 관련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동시에 양국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노이사무소는 베트남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베트남 금융산업 현황 등 관련 조사보고서 등을 수시로 작성하여 국내의 금융감독업무 수행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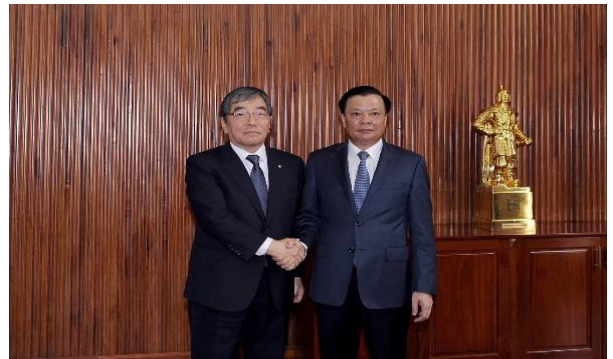
4. 하노이사무소 향후 계획

향후에도 하노이사무소는 베트남 정부 및 감독당국과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내 인허가 및 영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금융산업 발전단계에 맞춰 선진 금융제도 전수 및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베트남에 한국의 금융제도를 전파하여 베트남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국 금융회사에 친숙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앙은행 총재 면담>



<재무부 장관 면담>



<국가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중앙은행 핀테크 세미나>





고상구 회장의 베트남 비즈니스 이야기

5탄. K-MARKET의 신화

K-MARKET 고상구 회장

글로벌 브랜드 편의점에도 밀리지 않는 K-MARKET

K-MARKET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기껏해야 13년 정도 남짓인데 K-MARKET 매장개수는 벌써 100개를 넘어섰다. 그것도 코로나 이전 110개 이상이던 것에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매장을 정리하고 남은 매장개수만 따진 것이다. K-MARKET의 매장은 모두 직영점이며 총 고용인원은 1,500명 가량이다.

K-MARKET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는 항상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했다. 물론 코로나 기간만은 예외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바로 베트남의 급속한 도시화에 발맞추기 위해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신축 건물과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처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신규상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K-MARKET이 거점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타운십이 들어서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반드시 K-MARKET매장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거점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수요에 맞게 차별화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K-MARKET처럼 곳곳에 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유통매장이 ‘편의점’이고 수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서 운영중이지만 이들 편의점들은 K-MARKET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편의점브랜드들이 활동하고 있는 호치민의 경우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탑, 씨클K, 웨일리마트 등 많은 글로벌브랜드 기업들이 있지만 K-MARKET은 차별화 전략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왜 편의점은 K-MARKET의 상대가 안될까? 우선 판매되는 상품 구성이 다르다. 편의점의 경우 간편식, 과자, 스낵, 음료수 정도의 상품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K-MARKET은 일반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과일, 야채, 정육, 건강식품, 가정용품 등 다양한 제품군들을 판매한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 중 특히 신선제품이나 정육, 야채 식품류를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베트남이다. 오늘 시장에서 사온 야채도 내일 되면 상한다. 이 같은 신선식품을 다루려면 콜드체인을 갖춰야하고 대량의 상품 소싱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종류의 신선야채를 골라서 신속하게 배송하여 매장에서 판매해야 한다. 매장의 냉장고·냉동고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하는데 우리 K-MARKET도 지금수준까지 올라오는 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나 편의점은 관리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육, 청과, 야채 등은 다루기 어렵다. 우리 회사가 규모는 작지만 유통 관리 시스템은 베트남 최고라 자부할 수 있으며, 상황실에서 전 매장, 물류센터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다.



K-MARKET의 지점 확대 속도는 도시화와 비례한다

우리의 전략은 대형마트의 길목을 차단하고 편의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고객이 힘들게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K-MARKET에서 쇼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독자 제위께서는 하노이나 호치민 등 대도시가 충분히 도시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의 도시화도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대형 빌딩들이 즐비한 대로변은 도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면의 뒷골목을 들어가 보라. 거미줄처럼 복잡한 골목길 주변에는 어김없이 재래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새벽부터 아침시간 대까지 잠시 열었다가 무더운 낮시간엔 닫는 형태의 골목길 장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때 아직 도시화가 덜 된 거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K-MARKET 신규 입점 지역을 선정할 때 근방에 재래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 그런 자리에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골목장터 문화가 없어지고 편의점과 같은 상점이 들어와야 비로소 도시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하노이는 여러 제재, 규제로 인해 도시화의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10년 뒤의 현대적 소매유통시장은 엄청날 것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뒷골목 시장보다는 슈퍼마켓을 이용할 것이고 소비자의 수준 또한 높아져 청결,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탄력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거점 확보가 지금 필요하다. 어찌 보면 우리 K-MARKET도 아직 시작 단계에 서 있는 것이다.



K-MARKET의 미래는 온오프라인 통합에 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신규매장 오픈을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추후 이 매장들을 온오프라인 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K-MARKET의 장점은 많은 매장을 갖고 있다는데 있는데 이를 온라인의 장점과 결합시켜 온오프라인매장의 장단점을 서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온라인의 주요 장점은 편리성과 상품의 다양성 즉, 오프라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물건을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매장의 규모에 따라 구비할 수 있는 제품군이 제한적이기 마련인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 현재 K-MARKET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옷, 휴대폰, 소형 가전, 중고 자동차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들도 다수 판매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비즈니스의 문제점은 물류배송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다른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베트남의 경우도 대부분의 주문은 COD(Cash on Delivery)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결제 전 주문을 하고 물건이 도착하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를 반품 받기 위해 두 배의 물류비가 든다. 베트남 내 홈쇼핑 사업이 철수를 준비하거나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이처럼 물류비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또한 배송시간에 대한 과도한 경쟁도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을 해 주는 방식이 많은데 이는 작업자들이 야간 선별작업을 해야 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송기사들의 과로나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라이더들과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나 역시 왠지 마음이 편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K-MARKET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오프라인 매장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보통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하루 2~3회 씩 출고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고객들이 직접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희망할 경우 자택에서 배송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베트남 택배사가 저녁 6시~7시까지만 배송이 가능한 반면 K-MARKET은 밤12시까지 영업을 한다. 고객이 다음날 급히 필요한 물건일 경우 밤12시 전까지 언제든지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물류비용 부담이 줄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전달받기가 편해진다는 효용이 있다.

또한 반품에 있어서도 K-MARKET매장에서 물건을 열어 확인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매장에서 바로 반품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별도의 배송직원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베트남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K-MARKET은 매장 확장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이며 매장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통합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호에 마지막 6탄이 이어집니다>



투자프로젝트 이행 위반에 대한 쟁점 검토

법무법인JP 하노이사무소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투자법 제37조). 그리고 당연히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허가된 투자등록증을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투자등록증상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등록증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프로젝트 목적, 범위, 출자자본금, 자본금 출자 일정,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규모, 개발 일정 등 여러가지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실무적으로 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 관할 당국에서 어떤 사유로 위반사항을 지적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투자등록증이기때문에, 먼저 투자등록증 상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투자등록증의 기재 사항 검토

투자법 제40조는 투자등록증상의 내용을 각 호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1. 투자프로젝트의 명칭, 2. 투자자, 3. 투자프로젝트 코드, 4.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장소, 사용 토지면적, 5.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6.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금, 7.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기간, 8.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스케줄, 9. 투자 우대, 지원의 형식, 적용 근거, 조건, 10.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조건

위 투자법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으로써, 실제 발급된 투자등록증은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각 항목들은 실제 사례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주요 항목들에 관해 조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투자등록증의 세부 사항 및 발생 가능 이슈 검토

가. 투자프로젝트의 수행장소, 사용 토지 면적

이 부분은 주로 주소 및 면적 정도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양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사 후 투자등록증을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소지가 기재되는 자료는 크게 사업자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이 있습니다(또는 기타 업종별 추가인허가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 또는 공장을 이사하실 때, 변경이 간단한 사업자등록증만 변경을 하시고, 투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구 주소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적발되면 프로젝트 위반 관련 행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면적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하거나, 공장을 확장하여,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면적보다 더 많은, 혹은 다른 주소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투자등록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면적 외에 공장 면적 등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투자프로젝트 승인 후 설계, 건설 등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기에 공장면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몇몇 시성에서는 투자등록증 신청 당시부터 설계도면 제출을 요구하여 실제 공장 바닥면적 또는 몇 층짜리 건물인지 등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세부 정보가 기재될수록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기에 투자자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어, 투자등록증상 기재된 건물보다 실제 건설완료되어 사용되고 있는 공장 건물이 더 작거나 하여, 투자등록증에 따른 건설을 이행 할 것을 촉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제조업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목표로 하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물품 연간 100만개 등이 기재 되어있을 수도 있고, 품목에 따라 무게단위 등으로 처리 규모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취급하는 제품류에 대한 HS CODE가 전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제조인지, 임가공을 포함하는지 등과 같이 유사한 프로젝트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매출액 또는 생산액과 관련하여 등록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판매하거나 수출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투자등록증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 증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 숫자 변경이 아닌 다양한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프로젝트 목적은 가장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A품목을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B품목을 제조한다거나, A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데 B품목을 수입하였다거나 한다면 프로젝트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장을 지었는데 남은 공장이 있어 임대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프로젝트상 임대업을 포함하여야 하고, 회사에 남은 설비가 있어 타 법인에게 임대를 주고자 한다면, 해당 설비에 대한 임대업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회계적으로도 거래 회사가 해당 업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해당 지출이 법적인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항상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 투자프로젝트의 투자금

투자법상 투자금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차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이 둘을 합친 총 투자자본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납입자본금, 차입자본금에 대해 베트남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최저기준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등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최소 총 투자금의 15%~20%를 자기자본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기준일 뿐, 일반 제조프로젝트나 기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총 투자자본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어느정도 비율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불의 투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30%인 30만 불은 자기자본으로 납입하여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내어주고 있습니다(해당 비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혹은 차입자본금이 전액 100% 자기자본으로 진행하거나 50%정도만 한다면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어느정도 요구되는 이유는 차입자본금의 경우 상황을 통해 언제든지 베트남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이슈로는 차입자본금에 대한 제한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총투자금 100만 불 중 자기자본이 30만 불이고, 차입자본이 70만 불인 프로젝트에서 70만 불을 넘어서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총 투자자본금 증액 및 차입자본금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려 없이 차입을 계획하시다가 일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차입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등록증 변경이 요구되며, 때로는 추가 증자를 요구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신규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납입 기한은 설립 후 90일이지만, 투자등록증 변경 시 자본금의 납입 기일이 정해진 경우도 있는데, 해당 기일을 놓치는 경우 투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하여,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투자등록증 변경 신청서 접수 이후 투자등록증 검토에 시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납입기일이 임박하여 투자등록증이 발급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납입을 확인해주는 은행 등 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해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관공서 확인을 요청하는 바, 연장 신청이 별도 증명서 등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 협조적인 경우 투자등록증을 재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라.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기간

공단 등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프로젝트 활동 기간은 토지 계약기간과 일치하여 약 50년 정도를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사무실을 임차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조건부 프로젝트 등의 경우 3년, 5년 등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허가되는 프로젝트 들도 존재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프로젝트 만료 기일이 다가오는 경우 연장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도심에서 진행된 제조업 프로젝트 들의 경우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당 부지에서 연장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프로젝트 연장의 경우 관할 관청의 재량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스케줄

투자프로젝트 시행 스케줄의 경우 단일 절차로 한번에 투자가 이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계를 분할하여 전체 내용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단계 별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의 시행 스케줄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행정절차, 건설공사기간, 시설 투자기간, 프로젝트 개시기간 등으로 기재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기간도과에 따라 투자등록사항을 위반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년간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프로젝트를 종료시킬 권한이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신청 당시 다양한 문제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프로젝트의 경우 시장상황이 예상과 달라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설비투자, 공장증설 등 원래 계획했던 확장 계획의 시행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역시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Covid-19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원래 예정되었던, 즉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프로젝트 개발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프로젝트 일정 변경을 통해 개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변경도 제한이 있으며, 이행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취소와 같은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취소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토지에 대한 권한을 모두 상실하게 되어 재무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결

투자법 70조는 국가의 투자프로젝트 이행 감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법 72조는 각 투자자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상황 보고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각 개별 투자프로젝트의 이행여부가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가장 핵심은 투자등록증이며, 본문에서는 투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어떠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해와 진실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口頭)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유통 회사 지분 일부를 박OO 씨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사업을 시작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현재 뚜안 씨의 회사는 뚜안 씨 자신과 아들 및 조카가 98:1:1로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박OO 씨가 인수하면서, 제조 사업을 추가하고 회사 이름도 원하는 대로 변경해도 된다고 하였다. 박OO 씨는 이에 동의하였고, 지분 인수 후에 뚜안 씨는 공장 신축을 담당하고, 실제 경영은 박OO 씨가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식 양수도 계약서(株式讓受渡契約書, share transfer contract)를 작성하던 중, 뚜안 씨는 현재 사업 분야 중 일부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어 박OO 씨의 최대 지분은 49%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왔다. 신규 법인 설립보다 훨씬 간단하고 며칠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지분 인수 절차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되었고 몇 개월 후에야 간신히 완료되었다. 그동안 불만이 계속 쌓여가던 차에, 박OO 씨 본인은 지분 인수 대금을 모두 송금했는데 함께 동업하기로 한 뚜안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박OO 씨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주주총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공장 건축비에 대해 결의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생각한 박OO 씨는 급하게 상담을 하러 오셨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 많은 오해가 있었다.

상담을 하면서, 박OO 씨는 계속 지분을 50:50으로 하였고 수익도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규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할 때 구두상 합의했던 50:50을, 신규법인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뚜안 씨 회사 지분 중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뚜안 씨의 아들과 조카를 제외한 박OO 씨와 뚜안 씨 사이의 지분 비율이 50:50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뚜안 씨의 말대로 일부 사업 분야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었고, 49:49:1:1은 모든 투자자가 동의하고 박OO 씨가 직접 서명까지 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지분에 대한 대금은 뚜안 씨가 그의 지분의 반을 - 즉, 뚜안 씨가 원래 소유했던 98%의 절반인 49% - 박OO 씨에게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박OO 씨만 인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여러 차례의 주주총회 소집 통보에도 박OO 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모두 참석하지 않아 다른 주주들만으로 합법적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공장 건축비는 다른 곳보다 두 배 이상 높아서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합법적으로 의결된 상황이었다. 법률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오해로 인해 투자자 간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더는 동업을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베트남 투자 ·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베트남의 M&A는 ①지분인수, ②자산인수, ③(투자) 프로젝트 인수,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100% 베트남인이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업 목적의 분야를 포함해 인수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거나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대신 이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 명의의 회사를 인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 유한책임회사의 지분권자는 ‘사원(社員, member)’이라고 한다. 이때, 사원은 ‘근로자’나 ‘회사원’의 의미가 아니고, 단체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유한책임사원을 ‘주주(株主, stockholder/shareholder)’라고 부른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다.
-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의사(개회) 정족수는 첫 번째 시도 시 65% 이상의 지분 소유자(들)이 참석해야 하고, 두 번째 시도 시 50%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시도 때에는 정족수와 관계없이 개회할 수 있다. [기업법 59/2020/QH14. 제58조].
- 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개회) 정족수(議事定足數)는 첫 번째 시도 시 총 의결권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하고, 두 번째 시도 시 33%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시도 때에는 정족수와 관계없이 개회할 수 있다. [기업법 59/2020/QH14. 제145조].
-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보통결의(법인장 선임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59.3(a)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보통결의(이사 선임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50%를 초과한 인원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148.2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구체적인 가결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특별결의(구조조정, 해산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59.3(b)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구조조정, 해산 등)는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 총수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법 59/2020/QH14. 제148.1조]. 단, 사안에 따라 가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정관에서 구체적인 가결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베트남 중북부 유망 투자지 - 하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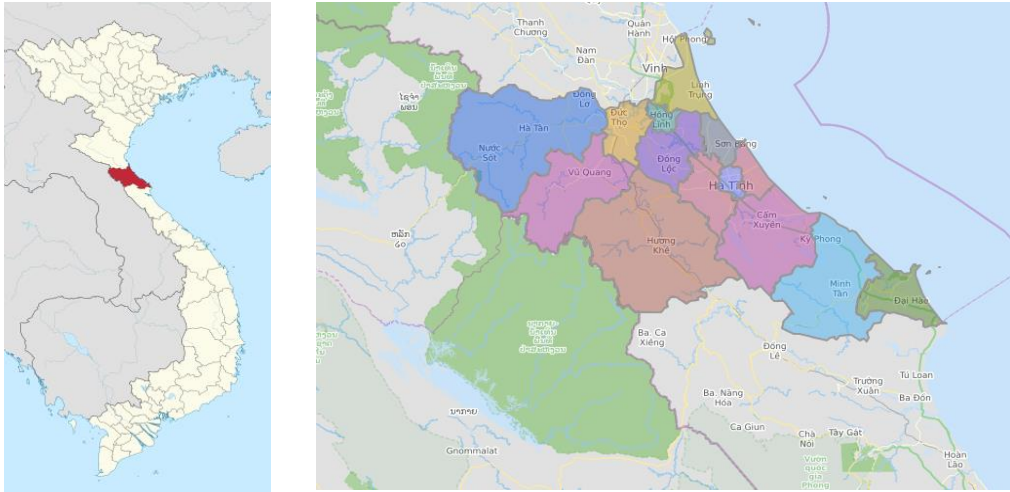
□ 하띵(Ha Tinh)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5,990.67km² 인구: 1,314,056명('21년) 도시거주 비율: 22.29%('21년)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띵성은 베트남의 중북부에 속하는 6개성 중 하나임 북쪽으로는 응에안(Nghe An)성, 남쪽으로는 광빈(Quang Binh)성, 서쪽으로는 라오스의 볼리캄사이(Bolikhamsai)주 및 캄무안(Khammuane)주, 동쪽으로는 통킹만과 인접해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띵성은 2개의 남-북 교통 축(1A 국도 및 호치민 도로)에 위치해 있으며, 태국 동북부, 라오스를 남중국해와 연결하는 교통 축(8A, 8B, 12C 국도)에도 위치해 있음. 하띵성은 국도 시스템과 함께 철도 및 수로 시스템으로도 라오스 및 전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들과 연결되어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5.02% 성 1인당 GDP: US 2,958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20억 달러 / 총 수입액: US 33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7.92%), 서비스업(2.22%), 농수산업(4.99%)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30.83%, 서비스업: 44.03%, 농수산업: 25.14%
노무여건('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51.81% 노동가능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72%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비율: 25.7%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띵시, 끼안(Ki Anh)군: VND 3,430,000= US 151 달러(3급지) 타 지역: VND 3,070,000= US 135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0.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띵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70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35.8억 달러 규모 (한국) 하띵성의 한국투자는 총 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52억 달러 규모 하띵성에 투자한 국자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3위, 투자액 기준으로 4위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 인프라



하핑성은 베트남의 중북부에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지역임. 또한, 경제 교류에 있어서 라오스, 태국의 동북부, 미얀마와의 화물 환적점 역할을 함. 서쪽으로 라오스와 인접해 있고 동쪽에 톤킹만과 봉양-선즈영 항구가 있어서 하핑성은 동서 회랑의 중요한 관문임. 게다가 남북 및 동서 경제 회랑이 하핑성을 관통하여 하핑성은 메콩강유역개발사업(Greater Mekong Subregion) 관련해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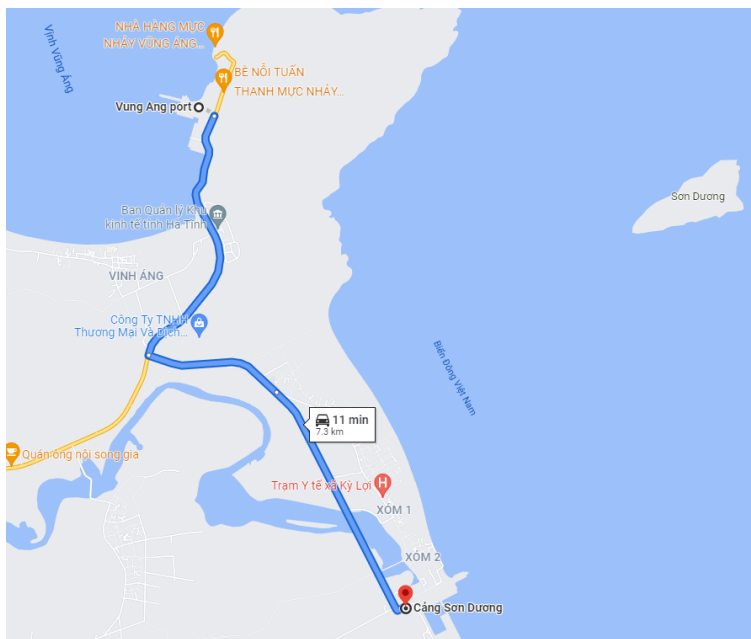


(도로) 하핑성의 도로교통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현재 8개의 국도는 성내 지역 및 국내외를 연결하고 있음. 향후 2개의 고속도로가 추가로 투자될 예정임:

- 남북 고속도로: 2021-2025년간, 하핑성을 관통하는 구간은 108km임
- 봉양(Vung Ang)-짜러(Cha Lo) 고속도로: 2030년 전후 기간으로 예정, 봉양 경제구역에서 짱빈(Quang Binh)성 짜러(Cha Lo) 관문에 걸쳐서 라오스와 연결함

(항구) 하핑성의 주요 항구들은 봉양(Vung Ang) - 선즈엉(Son Duong)항구지역과 쉐안하이(Xuan Hai)항구임. 봉양 - 선즈엉 항구지역은 지역의 허브 및 국가 항구시스템에서 1급 항구로 분류됨.

봉양 항구 구역에는 현재 2개의 항구역이 건설되어 최대 50,000DWT의 선박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 중 한 구역은 최대 30,000DWT의 석탄을 운송하는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봉양 화력발전소를 위한 석탄 수입용 구역임. 다른 한 구역은 최대 15,000 DWT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석유 제품 수출입용 구역임. 2020년 한 해 기준 봉양항을 통한 총 물동량은 320만 톤에 달함.



봉양 항구 근처에 Formosa Corporation 투자 프로젝트의 선즈엉 심해 항구가 있음. 하이퐁 항구(북부)와 다낭 항구(중부) 사이에 위치한 선즈엉 항구는 베트남 중북부의 해상 운송 루트의 중간 지점으로 간주됨. 2020년에는 선즈엉 항구를 통한 물동량이 2,500만 톤에 도달하였음.

현재 쉐안하이 항구에는 2개의 부두가 있으며, 최대 3,000DWT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봉양 - 선즈엉 항구가 있기 전에는 쉐안하이 항구가 하핑성의 가장 중요한 수로 관문이었음.

또한 하핑성에는 해안을 따라 많은 소규모 항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항구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반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로 대규모 심해 어업활동에 적합하지 않음.

(항공) 하핑성에서 응에안성의 빈(Vinh)공항까지는 약 60km이며, 봉양 경제구역에서 짱빈성 동허이 공항까지는 약 70-80km 임.



○ 관광 및 풍부한 천연자원

(관광)

- 물적 문화자원(관광지) : 하띵성은 해양관광, 생태관광 및 문화·역사관광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137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티엔깜(Thien Cam), 쉰안타인(Xuan Thanh), 록하(Loc Ha), 끼닌(Ky Ninh)과 같은 해변이 있으며, 선낌(Son Kim) 온천, 부짱(Vu Quang) 국립공원 및 께고(Ke Go) 호수도 있음.

하띵성 전체에는 495개의 성급 유적지, 82개의 국립 유적지, 2개의 특별 국립 유적지가 있음. 현재 깐록(Can Loc)현은 76개의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띵성에서 가장 많은 문화·역사 유적지를 가진 지역임.

- 무형 문화자원 : 유네스코는 응에-띤(Nghe Tinh)[응에안(Nghe An)-하띵(Ha Tinh)]의 비(Vi)와 잠(Giam) 민요를 대표적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으며, 까쭈(Ca Tru) 음악은 시급히 보존해야 할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음.

푹장(Phuc Giang) 학교 목판 및 “외교 사절단의 중국으로의 여정(The Envoyship Journeys to China)”이라는 책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음.

(천연자원)

- 풍부한 광물 매장량: 하띵성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 자원이 있음. 약 5.4억 톤 매장량의 탁케(Thach Khe) 철광석 광산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개발 광산임. Thach Khe Iron Joint Stock Company는 탁케 철광석 광산 및 연간 2백만 톤의 선광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를 받았지만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투자자금 여력 부족, 낮은 경제효율성 등의 문제와 환경비친화적인 개발 우려로 하띵성과 기획투자부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 프로젝트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개발중단을 제안한 상태임.

- 넓은 삼림 면적: 하띵은 풍부한 삼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25,000헥타르 이상의 숲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지속 가능한 임업 경제 발전, 특히 목재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됨:

- 법인 소득세 : 법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 세부규칙 및 시행지침의 시행령 제 218/2013/ND-CP 의결서 (2013.12.26)에 따름
 - 15년간 우대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 수입세 : 수입세 및 수출세법의 정부의 세부규칙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에 대한 제 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름
- 고정자산 생성을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면세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한 5년간 면세

- 토지세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제 46/2014/ND-CP 의결서(2014.05.15)에 따름
 - a. 기본 건설기간 동안 토지임대료 및 수면임대료 면제(최대 3년간), 관할 기관의 토지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적용
 - b. 기본 건설기간의 토지임대료 면제 기간 후: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13년간 면제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7년간 면제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0년 12월말 기준 하평성 내 외국인투자는 총 70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35.8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음.

○ 한국계 투자

2020년 12월말까지 한국투자는 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52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으며, 하평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한국은 대만, 중국에 이어 3위, 투자액 수준으로 대만, 중국, 미국에 이어 4위임.

○ 하평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선즈영(Son Duong) 철강 단지 및 심해 항구	대만	약 8,000,000,000
2	고로슬래그 파쇄공장 프로젝트	중국	25,363,054
3	다이비엠티(Dai Viet My) 공장 임대 단지	미국	15,449,128
4	망간실리콘 야금 플랜트 프로젝트	중국	15,228,426
5	포이닉스 프로젝트(항만역 5, 6호) - Vung Ang 항구	중국	9,845,474
6	푸빈(Phu Vinh) 도시권-서비스-무역	중국	9,357,757
7	바오자우(Bao Chau) 상업 및 서비스 시설 구축	미국	7,989,406
8	기아잉(Ky Anh)군 내 기술 시설 건설 및 집중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중국	7,768,704
9	아동 베트남(A Dong Viet Nam) 레미콘 공장	중국	6,269,315
10	Appareltech Ha Tinh 수출용 의류 공장	한국	6,181,015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주요 내용
1	붕앙(Vung Ang) 경제구역	2006년	22,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핑성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구역 총 146개의 유효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음(88개의 국내 프로젝트와 58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투자 유치 분야 : 야금 산업, 항구 이용과 관련된 산업, 노동 집약적 산업, 수출 산업 등 다양한 분야
2	깨우째우 (Cau Treo) 국경경제구역	2007년	56,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2015년에 정부 지정의 우선투자대상 8개의 국경 경제구역 중 하나이며 2016-2020년 기간에 지정된 우선투자대상 9개의 국경경제구역 중 하나임 2020년 말까지 136개 기업이 운영중
3	자락(Gia Lach) 공단	2010년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 기계, 제조 / 전자 부품 / 농림어업 가공 / 건축 자재 / 소비재 및 가전제품 생산
4	하반(Ha Vang) 공단	2014년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 기반시설 건설 / 농림어업 가공 / 조립, 기계, 제조 / 전기, 전자

□ 투자 유망분야

하핑성은 전기, 물류, 제조업 지원 산업, 고품질 농업, 기술, 무역, 여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함.

- 스테인리스 철강 공장 또는 고품질 철강 공장 건설 프로젝트
- 5성급 호텔을 포함한 복합관광휴양단지 프로젝트
- 가축과 연결된 육류 가공 공장 프로젝트
- 부두 및 붕앙 - 선즈엉 물류 센터 건설 프로젝트

□ 하핑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하핑성 기획투자청	Mr. Tran Viet Ha (청장) Mr. Phan Van Nhan (기업 및 투자실 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906 868 468 (Mr. Ha) • +84-913 294 237 (Mr. Nhan)
기업개발지원 및 투자진흥센터	Mr. Tran Nguyen Huynh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936 448 357 • Email: xtdt.hatinh@gmail.com • Website: http://xuctiendautu.hatinh.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1. 12. 20 기준 누계		2021. 1. 1 ~ 1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223	74,656.43	361	1,198.94	4,953.19
일본	4,798	64,397.17	199	2,790.27	3,897.48
싱가포르	2,836	64,361.64	221	6,105.13	10,711.98
대만	2,845	35,327.38	63	284.85	1,251.99
홍콩	2,041	27,836.16	126	1,672.24	2,315.77
버진아일랜드(영)	879	22,039.98	27	219.8	569.56
중국	3,325	21,337.89	204	1,664.35	2,921.72
말레이시아	665	12,805.57	20	23.19	142.84
태국	644	13,007.82	35	199.43	349.74
네덜란드	381	10,468.24	24	119.44	1,122.32
미국	1,138	10,280.25	77	398.4	738.66
기타	5,752	51,574.50	381	569.36	2,178.09
전체 합계	34,527	408,093.02	1,738	15,245.40	31,153.3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1. 12. 20 기준 누계		2021. 1. 1 ~ 1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592	241,936.51	533	7,251.98	18,120.89
2	부동산경영	993	61,773.58	57	1,390.03	2,637.42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75	33,876.67	23	5,316.16	5,711.75
4	호텔, 외식서비스	897	12,737.72	23	41.59123	167.6035
5	건설	1,772	10,917.06	28	58.60388	457.2783
6	도소매, 유지보수	5,581	9,091.10	488	293.7894	1,404.02
7	물류운수	918	5,797.58	53	426.3679	783.7924
8	채광	108	4,898.40	-	-	1.471436
9	교육, 양성	608	4,434.40	27	12.64325	51.08486
10	정보통신	2,456	4,246.22	156	226.0526	404.3884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3,788	4,103.73	291	143.3059	1,023.98
12	농, 임, 수산	516	3,723.72	15	59.96841	156.7846
13	예술 오락	137	3,392.34	1	0.13052	1.681558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905.94	2	7.202	116.936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1.34	1	1.1	4.517989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2	987.97	38	11.82786	46.52468
17	금융, 은행, 보험	79	788.69	1	4.5	59.62592
18	기타서비스	145	729	1	0.15	3.599067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4,527	408,093.02	1,738	15,245.40	31,153.3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수 출	2,434.8	2,641.8	2,826.5	3,363.1
수 입	2,366.8	2,530.7	2,627.0	3,322.3
무역수지	68.0	111.1	199.5	40.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9,077	51,378	51,183	57,537
전기전자제품/부품	29,320	35,925	44,576	50,828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49	18,303	27,193	38,344
섬유/직물제품	30,448	32,850	29,809	32,753
신발류	16,238	18,320	16,791	17,751
원목 및 목제품	8,908	10,647	12,371	14,809
철강제품	4,549	4,210	5,258	11,795
수송수단 및 부품	7,964	8,505	9,090	10,616
수산물	8,794	8,543	8,412	8,886
원사(Yarn)	4,025	4,176	3,736	5,612
기 타	67,611	71,332	74,235	87,379
합 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197	51,353	63,971	75,44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27	36,748	37,251	46,29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5,865	14,615	16,645	21,434
의류(원단)	12,774	13,276	11,875	14,324
플라스틱 원료	9,066	8,991	8,397	11,685
각종 철강	9,890	9,507	8,066	11,523
기타 비금속	7,249	6,385	6,052	8,611
플라스틱 제품	5,893	6,538	7,274	7,959
화학제품	5,030	5,419	5,741	7,627
화학물질	5,163	5,128	5,016	7,735
기 타	89,833	95,110	92,412	119,600
합 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1	미국	41,608	47,526	61,347	77,077	96,293
2	중국	35,463	41,268	41,414	48,905	56,009
3	한국	14,823	18,205	19,720	19,107	21,945
4	일본	16,841	18,851	20,413	19,284	20,128
5	홍콩	7,583	7,955	7,156	10,437	11,996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7,686
7	독일	6,364	6,869	6,555	6,644	7,286
8	인도	3,756	6,542	6,674	5,235	6,259
9	태국	4,786	5,494	5,272	4,917	6,161
10	영국	5,424	5,776	5,758	4,955	5,765
	기타	77,364	77,921	82,999	79,094	96,782
	합계	214,019	243,483	264,189	282,654	336,31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1	중국	58,229	65,438	75,452	84,187	109,874
2	한국	46,734	47,497	46,935	46,895	56,155
3	일본	16,592	19,011	19,526	20,341	22,648
4	대만	12,707	13,228	15,173	16,701	20,772
5	미국	9,203	12,753	14,365	13,713	15,270
6	태국	10,495	12,023	11,656	10,968	12,564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8,148
8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7,946
9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7,587
10	인도	3,940	4,147	4,538	4,435	6,950
	기타	40,521	46,238	47,975	48,826	64,320
	합계	211,103	236,687	253,070	262,700	332,23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56,729(16.9)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32,763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5(22.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12,049(26.1)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3,314(-4.2)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2,404(7.3)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2,414(49.5)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1,266(20.4)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1,174(5.3)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1,157(-3.2)
계측제어분석기	1,058(145.1)	696(-34.2)	783(12.4)	669(-14.5)	956(43.0)
자동차부품	385(-12.7)	474(23.3)	668(40.9)	673(0.8)	924(37.3)
기타	17,516	16,121	16,350	15,244	17,046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11(0.7)	56,729(16.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12 (누계)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5,579(12.0)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3,392(7.9)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1,659(30.6)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984(-4.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875(-14.7)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754(19.5)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725(26.2)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640(23.3)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750(33.8)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460(13.2)
기타	5,279	6,197	6,330	6,473	8,147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한-베 사회보험협정 주요 질의 및 답변

1. 사회보장협정이란 무엇이며, 협정 체결 현황은?

□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 현재 42건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을 포함한 5개 협정은 아직 미발효

※ 협정 체결 국가(2021.12월 기준)

* 괄호 안은 미발효

-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중국,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칠레, 핀란드, 퀘벡, 페루,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2.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주요 내용은?

□ (보험료 면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기간 60개월(36개월 연장 가능) 동안 파견국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상대국 연금보험료는 면제

○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60개월 동안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

※ 우리 연금보험료율 : 9%(근로자·고용주 각 4.5%)

베트남 연금보험료율 : 22%(근로자 8% + 고용주 14%)

□ (가입기간 합산) 급여 수급자격 결정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베트남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20년



※ (예)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이 1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급여 수급 자격 획득

3.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적용대상은?

□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3조제1항 *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즉 소위 ‘주재원’)의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3①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기업의 관리자, 운영감독자, 전문가 및 기술자로서 기업 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상업적 주재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

□ 한-베 사회보험협정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1.1.부터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요율: 사업주 14%, 근로자 8%)에 대하여만 적용됨

○ 즉, ①기업 주재원이지만 해당 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자이거나 ②현지 채용자로서,

-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직장가입, 개인가입 불문)의 경우 ‘베트남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면제 또는 향후 연금 가입기간 합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발효시점은?

□ (보험료 면제) 협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계약당사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 현재 베측은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우리측은 지난 ‘21.12.14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아 있어, 국회의 비준절차가 끝나고 우리측에서 베측에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하면, 통보한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 예컨대 22.2월 국회에서 협정을 비준한 경우, 우리측이 베측에 2월에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고 서면 통보하면 22.4.1부터 발효

○ 현재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베측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 한편, 한-베 사회보험협정 미발효로 인하여 베측에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경우, 베 사회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향후 가입기간으로 합산 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 합산) 우리측은 준비가 되었으나 베측의 경우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베트남 사회보험법령 개정이 필요

※ 베측이 사회보험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보험료 면제와 동일하게, 양측 모두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후에 통보한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5. 베트남 사회보험료 면제 절차 및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는?

□ (면제 절차) 진출기업 등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 국제협력센터는 진출기업 등에 가입증명서 발급 → 시·성 사회보험청에 가입증명서 제출

○ 다만 “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 등은 베측과 협의 진행 중이며 향후 별도 공지 또는 안내 예정

□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향후 별도 공지 또는 안내 예정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